

## 동서독의 언어사전 비교\*

- 『독일현대어사전』과 『독일어대사전』을 중심으로

최 경 은\*\*

### [국문초록]

동서독의 분단 후 동독에서 나온 『독일현대어사전』은 독일사전편찬사에서 획기적인 사전이었다. 『독일현대어사전』은 역사적, 통시적 서술에 얽매어 있었던 독일사전학의 전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쉬르의 언어학에서 러시아, 체코의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이어지는 체계언어학 이론을 사전 구성의 콘셉트로 삼아 기술한 최초의 사전이기도 했다. 또한 이 사전은 편찬 과정에서 동독의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사전의 어휘 설명 콘셉트가 획기적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즉, ‘교양을 지닌 계층의 언어’를 서술하는 데서 ‘마르크스-레닌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서독의 대표 사전인 두텐의 『독일어대사전』은 시기적으로도 동독의 『독일현대어사전』보다 늦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의 구성 면, 특히 어휘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NRF-2010-361-A00018).

\*\*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어: 『독일현대어사전』, 『독일어대사전』, 동독, 서독, 표제어

*Das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ichwort*

설명에서 문체를 표시하는 것 등은 동독의 사전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렇지만 서독 사전의 개념트는 동독 사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즉, 서독의 사전은 현재 사용되는 구어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유명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실용서나 잡지, 국회 회의록 등 여러 종류의 텍스트에 나오는 어휘를 포괄적으로 담으려 시도했다.

동일한 표제어를 보기로 동서독의 두 사전, 즉 『독일현대어사전』과 『독일어대사전』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동서독의 언어관, 더 나아가서 세계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이 논문에서 보기로 든 세 표제어 ‘Manipulation’(조작), ‘Pazifismus’(평화운동), ‘Vaterland’(조국)의 어휘 설명에서 이런 사실은 분명해진다.

## 1. 서론

동독은 1970년 13차 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양 국가 이론의 선언’ 후 동독어를 국어 형태의 변이형으로 보려는 정책을 폈다. 1970년 동독의 서기장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언어의 공통성이 해체되고, 인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찼던 괴테, 실러, 레싱, 마르크스, 엥겔스의 언어가 제국주의에 의해 물들었다. 서독의 언어는 동독의 언어와 너무나 다르다.”<sup>1)</sup>

이런 맥락에서 급기야 1974년 할레의 독어학자 고트하르트 레르히너는 “동독의 독일어는 서독의 독일어와 다르다. 이제 동독어는 서독,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독일어 등과 함께 ‘국어 형태의 변이형’으로 발전되었다”<sup>2)</sup>라고 단언하기에 이른다.

1) *Neues Deutschland* vom 16.06.1970, p. 4.

2) Lerchner, Gotthard (1974), “Zur Spezifik der Gebrauchsweise der deutschen Sprache in der DDR und ihrer gesellschaftlichen Determination”. In: *Deutsch als Fremdsprache* 11, p. 264.

이에 반해 서독의 학자들은 국가의 통일과 동서독의 공통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동서독의 언어를 하나의 독일어로 보았다. 즉, 독일어의 경계는 국가의 경계와는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국가’라는 개념은 역사적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강령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sup>3)</sup>

동서독의 이런 서로 상이한 언어관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사전편찬분야이다. 1948년 독일의 분단이 확정된 후 1990년 다시 통일될 때까지 동서독의 언어 차이는 여러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미미한 수준이다.<sup>4)</sup> 그러나 어휘 분야는 동서독의 상이한 정치 체제로 인해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서독의 언어관과 어휘의 차이가 사전, 특히 단일어 언어사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분단 이전에 사전편찬 상황을 살펴보고 난 후, 동서독의 대표적 언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현대어사전』(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1961-1977)과 『독일어대사전』(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1976-1981)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표제어를 예로 들어 각각의 사전에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지 서로 비교 분석할 것이다.

3) Drosdowski, Günther (1991), “Deutsch — Sprache in einem geteilten Land. Beobachtungen zum Sprachgebrauch in Ost und West seit 1945-1990”. In: *Sprache und Unterricht* 67, p. 23.

4) 동서독 언어의 차이와 통합 과정에 대한 연구는 최경은(2015), 「통일 독일의 언어 통합」,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pp. 53-74를 참조하시오.

## 2. 전후 독일어사전편찬의 상황

1947년 분단된 독일에서 사전학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브로크하우스 언어사전, 두텐 정서법사전, 19세기에 처음 출판되었던 호프만 언어사전과 같은 사전들이 나치의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출판되었다. 나치에 대한 흔적 지우기는 우선 전형적인 나치 어휘가 표제어에서 사라지고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들이 의미 설명 부분이나 용례에서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전후(戰後) 최초의 언어사전으로 출간되었던 브로크하우스 언어사전에는 표제어 ‘Nationalsozialismus’(나치, 국가사회주의)가 삭제되었다.

사전학자들은 나치가 집권하기 전인 1933년 이전 판으로 돌아갔다. 이제 새로운 장정들이 옛날 사전들을 편집하여 시장에 나왔다. 특히 리하르트 페크룬<sup>5)</sup>과 루츠 마켄센<sup>6)</sup>의 사전이 그 보기로 언급될 수 있다. 마켄센의 사전은 1937년 ‘인종주의적 토대’에서의 언어연구를 ‘구원’(Erlösung)으로 파악하였고<sup>7)</sup>, 70년대까지 표제어 ‘Ostmark’의 의미를 ‘오스트리아, 동쪽 국경선’으로 기재하였다. 1986년에 나온 12판에서 비로소 ‘독일의 예전 동쪽 국경’으로 바뀌어 있지만, ‘Ostrasse’는 여전히 ‘발트해 동쪽의 종족’으로 설명되어 있다.

1959년판 페크룬 사전에는 ‘national’이 ‘조국의, 민중의’라는 의미로 기재되어 있고, 표제어 ‘Reich’(제국) 항목에서 복합어 ‘Deutsches Reich’(독일제국), ‘Reichsautobahn’(제국 고속도로), ‘Reichshauptstadt’(제국 수

5) Pekrun, Richard (1933), *Das deutsche Wort. Rechtschreibung und Erklärung des deutschen Wortschatzes sowie der Fremdwörter*. Leipzig, 2. Auflage, Heidelberg 1953.

6) Mackensen, Lutz (1952), *Neues Deutsches Wörterbuch. Rechtschreibung. Grammatik. Stil. Worterklärung. Fremdwörterbuch*. Laupheim.

7) Maas, Utz (1988), Die Entwicklung der deutschsprachigen Sprachwissenschaft von 1900 bis 1950 zwischen Professionalisierung und Politisierung.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6, pp. 232-252.

도), ‘Reichstagsabgeordnete’(제국의원), ‘Reichsverfassung’(제국 헌법) 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독을 의미하는 표제어 ‘Bund’(연방)에서도 ‘Bundesbahn’(연방 철도), ‘Bundestag’(연방의회) 등 당대에 사용된 정치 용어도 등재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서독(Bundesrepublik)에서 살고 있었던 사전학자의 개인적 언어 지식에서 나온 자연스런 결과였다.

1920년대 사전 편집은 현재의 언어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현상은 196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비간트<sup>8)</sup>에 따르면 사전들이 대략 1차 세계대전까지의 언어상태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언어의 형태적 측면, 즉 어원론적인 정보와 정서법만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었다.

마켄센과 페크룬은 개정이나 교정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제목만을 바꾸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출처 발췌라든지 코퍼스의 형태로 언어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없는 개정 작업은 마켄센의 경우 ‘Schürze’(앞치마)에 대해 ‘Schutzkleidungsstück’(보호복)의 의미로 설명함으로써 사전에서만 나올 수 있는 해괴한 해석으로 이끌고 있다.<sup>9)</sup>

### 3. 동독의 『독일현대어사전』

독일 사전편찬학의 ‘미단야’(Mißstand)<sup>10)</sup>는 1952년에 동독에서 『독일현대어사전』이란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사전이었다. 베를린 독일학술원에 독일의 언어와 문학 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거기서는 그림(Grimm)

8) Wiegand, Herbert Ernst (1990), “Die deutsche Lexikographie der Gegenwart”. In: *Wörterbuch,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r Lexikographie*. F. J. Hausmann et al. (Hrsg.), Teilbd. 2, Berlin/New York, p. 2109.

9) Wiegand (1990), p. 2123.

10) Wiegand (1990).

형제의 『독일어사전』(Deutsches Wörterbuch) 편찬뿐만 아니라 현대 언어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었다. 1952년 4월에 열린 이 연구소의 창설 기념 세미나에서 언어학자 중 몇 안 되는 나치 반대자였고 1934년 공산당원으로서 소련으로 망명했었던 슈타이니츠(Wolfgang Steinitz)는 ‘현대 독일어 분과의 과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이 연설에서 슈타이니츠는 5, 6권에 이르는 현대독일어사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 사전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두 명의 여성학자, 즉 연구소 소장인 루트클라펜바흐와 그의 언니인 헬레네 말리게-클라펜바흐가 참여하였다. 이것은 독일 사전편찬사에서 여성학자가 공개적으로 참여한 첫 사례였다. 클라펜바흐 자매 외에도 약 15명, 많을 때에는 30명까지의 사전학자들과 용례 수집을 위해 최소한 3명의 정규직 직원이 사전편찬 작업에 참여했다.<sup>11)</sup> 준비 작업은 9년간 지속되었고, 6명의 직원이 1952년에서 1961년 사이에 서독으로 이주하는 일도 발생했으며, 1977년 사전이 모두 발간될 때까지 총 25년이 걸렸다.

독일의 사전편찬 전통이 역사적-통시적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현대어사전』은 사전편찬의 모범 사례와 해답을 소련과 체코의 사전학에서 찾았다.<sup>12)</sup> 현재와의 관련성은 소쉬르에 의해 정립된 개념인 공시태(Synchronie)와 통시태(Diachronie)의 구분에서 유래했으며, 시스템으로서 언어와 어휘를 관찰하는 체계언어학(Systemlinguistik)을 사전편찬 개념으로 삼았다.<sup>13)</sup>

『독일현대어사전』을 전후 사전편찬사에서 이정표로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차 문헌 텍스트에서 어휘를 발췌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쓴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통해 『독일현대어사

11) Klappenbach/Malige-Klappenbach (1980), *Studien zur modernen deutschen Lexikographie*. Amsterdam. p. 8.

12) Klappenbach/Malige-Klappenbach (1980), p. 7.

13) Klappenbach/Malige-Klappenbach (1980), p. 60.

전』은 19세기 말 이래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편집된 어휘 목록과는 마침내 결별할 수 있었다. 1953년부터 단어 카드의 구축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단어 카드는 882편의 문헌에서 발췌한 총 2백 5십만 건의 용례를 포괄하고 있다.<sup>14)</sup>

마지막 권인 6권 출처 목록에서 언급된 작품 이외에도 언론으로 출판된 수많은 양의 텍스트, 모든 종류의 단일어 사전과 이중어 사전, 그림 형제의 『독일어사전』에서 사용된 많은 텍스트들이 활용되었다.

이런 1차 문헌의 프로파일은 제 1권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 슈타이니츠에 의해 규정되었다.

사전은 (...) **현재 교양을 지닌 계층의 언어**를 서술해야 한다. 교양을 지닌 계층이란 학문, 예술, 기술, 경제, 행정, 사회 조직, 정당 등에서 책임을 지니고 활동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그들은 우리의 공적인 삶, 순수 문학, 학술이나 기술 서적, 언론 등의 언어를 사용한다.<sup>15)</sup>

이런 규정으로 현대어에서 특별한 것이나 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 사전에 등재되었다. 그 외에도 흔히 사용되는 외래어 어휘도 자연스럽게 등재되었다. 그에 반해 전문어, 특수어, 방언 등에서 유래한 어휘들은 아주 드물게 수용되었으며, 일반 표준어 어휘의 통합 정도에 따라 수용되었다. ‘교양을 지닌 계층의 언어’라는 슈타이니츠의 생각 이면에는 좀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그는 우리 시대에 여전히 읽혀지고 있는 생생한 과거의 독일문학 언어도 사전에 등재되길 원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18세기 말과 19세기의 문학을 어느 정도”<sup>16)</sup> 포함시킬 것을 원했다.

14) Klappenbach/Malige-Klappenbach (1980), p. 6.

15) WdG, Bd. 1 (1980), p. 4.

16) WdG, Bd. 1 (1980), p. 4.

그러나 이런 문학에서 유래하고 있는 고어화된 어휘들이 모두 등재된 것은 아니고, 유명한 고전 작품에서 사용된 어휘 중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어휘만이”<sup>17)</sup> 선택되었다. 사전편찬학자들은 현대와 20세기에 사용되는 어휘가 고전주의자들의 어휘들로 인해 등재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지만, 『독일현대어사전』은 18, 19세기 교양시민의 문학정전에서 등장한 어휘들을 비교적 많이 등재하고 있다. 레싱, 베티나 폰 아르님, 클레멘스 브렌타노, 괴테, 드로스테-휠스호프, 하인리히 하이네,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슈테판 츠바이크, 하인리히 만, 토마스 만, 브레히트, 고트프리트 벤, 귄터 그라스, 하인리히 뵐 등의 문학작품에서 사용되었던 어휘들이 사전에서 쉽게 발견된다. 슈타이니츠가 교양을 지닌 계층의 언어라고 명명했던 ‘문학어’를 수용한 결정은 이데올로기적인 근거도 갖고 있다.

우리의 고전문학은 독일 ‘좌파’, 독일 노동자계급 그리고 그들의 정당 독일 통일사회당에 의해 독일문화의 불멸의 구성 요소로 사랑 받았고 보존되었다. 우리는 과거 바이마르와 나치시대 수십 년간의 죄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고전 유산과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sup>18)</sup>

그 당시 짧은 역사를 지닌 동독은 독일 국가의 교양시민적 문화유산을 선전했고, 사전이 이런 요구를 기록해야만 하며, 아마 공산주의자를 문화가 없으며 반국가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전이 좀 더 나은 것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전의 이런 콘셉트에 대해 비간트는 “위로부터 규정된 규범적인 언어문화”<sup>19)</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17) WdG, Bd. 1 (1980), p. 4.

18) Wiegand (1990), p. 2132에서 재인용.

19) Wiegand (1990), p. 2132.



『독일현대어사전』의 네 번째 책부터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노선 수정을 통해 통일사회당의 영향이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런 ‘독일 좌파, 독일 노동자계급의 언어’<sup>20)</sup>라는 사전 콘셉트가 존재했었다.<sup>21)</sup> 어쨌든 슈타이니츠는 아델룽(Adelung)과 캄페(Campe) 이래 코드화된 고지독일어를 교양 계층의 언어 소유, 다시 말해 문학어와 동일시하게 만들었던 사전편찬의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코퍼스에서 추출한 보기와 용례들은 전체적으로 20세기의 사전을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일깨운다. 용례로 든 문장들이 풍부하며 단어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에 반해 문학 용례들은 드물지만 잘 선별되어 있다. 헬레네 말리게-클랍펜바흐는 이런 문학 용례에서 ‘문화 과제’를 볼 수 있을 것임을 후에 강조했다.<sup>22)</sup> 예를 들면 표제어 ‘Feld’의 다섯 번째 의미에는 귄터 그라스가 장편소설의 제목<sup>23)</sup>으로 이용하였던 『에피 브리스트』에서 유래한 폰타네 인용이 등재되어 있다. “Ach, Luise, laß ... das ist ein zu weites Feld”<sup>24)</sup>(아 루이제, 그만해 ... 그것은 너무 넓은 광야야).

『독일현대어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체계적인 스타일 표시이다. 이것은 그 당시 러시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슬라브어권 국가들이 수용했던 언어학적 연구 결과들을 동독의 학술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데서 기인했다. 통사론과 어휘론에서 러시아 구조주의와 프라하학파의 문체론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다. 『독일현대어사전』은 구조주의적 의미론을 사전편찬학에 도입했고

20) 이에 반해 그림 형제의 『독일어사전』은 사회주의나 좌파 자유주의 작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경은(2015), 「122년에 걸쳐 펴낸 그림 형제의 『독일어사전』, 『새국어생활』 25권 3호, p. 163 참조.

21) Wiegand (1990), p. 2132.

22) Malige-Klappenbach (1986), *Das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p. 194.

23) 1995년에 귄터 그라스가 발표한 장편소설 『광야』(Ein weites Feld)를 의미한다.

24) WdG 2권(1981), p. 1246.

그럼으로써 독자적으로 언어학적 연구를 주도했던 최초의 사전이 되었다. 이 사전에서 어휘론, 사회언어학, 문체론 분야에서 사전편찬학이 한 단계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61년 『독일현대어사전』 첫 번째 분책이 출간됨으로써 소쉬르의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독일어사전에 적용되었다.

체계적인 스타일 표시는 루트 클랍펜바흐에 의해 4가지 ‘문체층위’(Stilschichten)과 11가지 ‘문체투’(Stilfärbungen)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층위는 ‘통상적 표현’(Normalsprachlich)에서 출발하여 위로는 ‘고상한 표현’(gehoben), 아래로는 ‘가벼운 표현’(salopp)과 ‘비속한 표현’(vulgär)으로 구분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전체적인 스펙트럼이 서술되어야 했는데, ‘비속한’ 어휘와 관용구는 ‘제한된 범위’로만 고려되었고, ‘비속한 표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음란한’(obszön) 어휘들은 등재되지 않았다.<sup>25)</sup> 오늘날 낯설지 않은 표현인 ‘가벼운’(salopp)이란 표시는 『독일현대어사전』의 저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문체투는 층을 세분화한다. 예를 들면 ‘익살맞은 표현’(scherzhaft)은 Adamskostüm (아담의 의상, 즉 나체라는 의미), Angstphase (겁먹은 토끼, 즉 겁쟁이), ‘친근한 표현’(vertraulich)은 Alterchen (어린 노인, 즉 여보게라는 의미), ‘은폐하는 표현’(verhüllend)은 sterben(죽다) 대신에 사용하는 표현인 abrufen werden (소천하다), ‘구식 표현’(altertümlich)은 alldieweil (그 동안에), Konterfei (모사), ‘부자연스러운 표현’(gespreizt)은 Beinkleid (다리 옷, 즉 바지), ‘관청어 표현’(papierdeutsch)은 altenkundig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즉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나 전치사 laut (~에 따라서)가 사용되는 구조를 지닌 관용구처럼 관청어에서 유래한 많은 어휘들이다. 일곱 번째 문체투는 ‘과장된 표현’(übertrieben)인데, sie ist abscheulich

25) Müller, W. (1990), “Das ‘Fremde’ in deutschen Wörterbüchern: die Sexualität.” In: *Bewegung mit dem ‘Fremden’. Grenzen — Traditionen — Vergleiche. Akten des VIII. Internationalen Germanisten Kongresses Tokyo, München, Bd.4, p. 240.*

reich (그녀는 끔찍하게 부유하다)라는 문장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그 다음 문체투로는 ‘경멸적인 표현’(abwertend)으로 abschachern (schachern은 ‘폭리를 취하다’에서 유래하여 ‘미심쩍은 방법으로 다루다’의 의미), ‘비웃는 표현’(spöttisch)으로 Amtsmiene (벼슬아치의 티를 내는 표정), ‘욕설’(Schimpfwort)로 Esel (당나귀에서 유래하여 ‘바보’라는 의미), 끝으로 ‘투박한 표현’(derb)으로 abkratzen (kratzen ‘긁다’에서 유래하여 긁어서 없애다의 의미로 ‘죽다’를 뜻함) 등이 있다.

여기서 화용론적 언어서술의 몇몇 관점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물론 화용론은 화자의 입장, 상황 적용 등 단어사용과 규칙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요소들로서 ‘스타일’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지, 『독일현대어사전』과 같이 단어의 특징으로 규정하진 않는다. 『독일현대어사전』의 문체층위 모델에서는 비록 스타일을 규정하려는 의도가 모든 종류의 스타일 표기에는 적용되지 못할 지라도 규범의 체계화가 이루어진다.<sup>26)</sup>

시간, 공간, 전문어 등으로 단어를 배열한 것도 『독일현대어사전』 스타일 표시 시스템에 속한다. 시간 표기의 경우 ‘고어’(veraltet), ‘준고어’(veraltend), ‘역사적 언어’(historisch), ‘나치시대 언어’(nazistisch),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신조어 등으로 구분된다. ‘신어’(Neuwort), ‘신표현’(Neuprägung), ‘신조어’(Neuschöpfung)<sup>27)</sup> 등은 경우에 따라 ‘동독’(DDR)과 ‘서독’(BRD)이라는 표기가 보충되었다. 1권의 머리말에서 이런 표기에 대한 사례로 ‘동독’은 volkseigen (인민이 소유한), Held der Arbeit (노동 영웅), ‘서독’은 Parkometer (주차료 징수기)와 같은 단어를 들었다. 공간적인 표시는 모든 종류의 방언을 표제어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적용되었다. 전문어나 특수어 표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되는 어휘만이

26) Malige-Klappenbach (1986), p. 112.

27) Neuwort, Neuprägung, Neuschöpfung 등은 모두 ‘신조어’의 세분화된 표현으로, Neuwort는 ‘새로운 단어’, Neuprägung은 ‘새로운 표현’, Neuschöpfung은 ‘조어 수단을 통하지 않고 완전히 창조된 단어’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명될 수 있다.

수용되었기 때문에 아주 드물었다.

사전편찬자들은 스타일 결정의 주관성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료들 간의 꾸준한 토론으로 위험을 줄이려고 시도했다. 예컨대 ‘전문어’라는 표시는 약 20명의 정보 제공자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결정되었다.<sup>28)</sup>

체계적 해결책은 조어 서술, 특히 복합어에서 발전되었다. 표제어의 오른쪽으로 확장되는 복합어는 표제어 내에서 하부 표제어로서 혹은 독자적인 그룹 항목(Sammelartikel)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면 네 가지 상이한 의미를 지닌 표제항 Besatzung (점령)에는 Besatzungsarmee, Besatzungsmacht, Besatzungszone 등의 복합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룹 항목이 따른다. 그러나 사전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Bootsbesatzung, Panzerbesatzung, Zugbesatzung처럼 왼쪽으로 확장되는 복합어의 경우에 발생한다. 『독일현대어사전』은 개별 의미항의 말미에 조그만 활자로 이런 복합어를 소개하고 있으며 주 표제어의 개별 의미의 숫자를 매기며 이런 복합어를 정렬하고 있다. 예를 들면 Bootsbesatzung은 의미 1, ‘특히 배나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 승무원’에 해당하는 Besatzung에 속하지만, 의미 3, ‘어느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서술은 19세기 잔더스의 사전에서 이미 시행되었던 바 있지만, 역사적 방향에 역점을 두었던 독일 사전편찬학의 주류는 이런 사실을 잊고 있었다.

『독일현대어사전』의 첫 세 분책들은 그림 형제의 『독일어사전』이 완성되었던 해이며 기획한지 9년이 흐른 1961년에 출간되었다. 다음의 분책들은 제3권이 1969년 완전히 출간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뒤엔 계속 지체되었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강요받았던 『독일현대어사전』의 콘셉트 변화와 관련이 있다. 1970년 31번째 분책과 더불어 출판되었던 제4권 머리말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온다.

28) Malige-Klappenbach (1980), p. 43.

독일현대어의 사전은 (...) 제4권부터 전체 어휘에 지속적으로 마르크스-레닌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서술될 것이다. 이것은 표제어의 선택, 의미 정보, 설명하는 주해, 보기의 선택 등에 적용된다.<sup>29)</sup>

미래 두 독일국가가 서로 상이하게 발전하게 될 언어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고 있다.

두 사회질서의 어휘목록에서 가장 심한 변화는 동일한 기호의 의미 세분화를 통해 발생하였다. (...) 개념의 차이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시민사회 이데올로기에서 서로 대립되는 — 사회관계의 적합한 반영을 가능하게 하거나 저지하는 — 계급의 관심이 표현되는 곳에서 나타난다.<sup>30)</sup>

그러나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차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독일현대어사전』의 첫 세 권도 이미 이런 차이를 반영하였다. 거기서는 ‘비사회주의적 경제시스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등과 같은 표현들이 서독 체제에 속하는 어휘의 설명에 사용되었다.<sup>31)</sup> 서독 혹은 동독에서만 사용되는 어휘에 대한 표시는 특히 신조어의 경우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제4권부터는 **‘홀륭한’ 사회주의 체제와 ‘퇴폐적이며’, ‘부르주아적인’ 체제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이런 차이에 정치적 평가를 기재**하였다. 헬레네 말리게-클라펜바흐는 이런 콘셉트를 ‘구분의 콘셉트’<sup>32)</sup>로 명명했다.

예를 들면 ‘Prokurist’(지배인)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 ‘Oberschicht’(지도층)의 경우 ‘시민사회’, ‘Nebenkläger’(부고소인)의 경우 ‘민사법’ 등과

29) WdG, Bd. 4, p. 2412.

30) WdG, Bd. 4, p. 2411.

31) Malige-Klappenbach (1986), p. 163.

32) Malige-Klappenbach (1986), p. 50.

같이 ‘사회적 상황에 대한 표시’도 편집상으로 약속된 표현에 속했다. 그리고 ‘Mensch’(인간)와 ‘deutsch’(독일의)와 같이, 어휘의 의미론적 서술에 대해 오래 전부터 논쟁되어 왔던 어휘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어휘’라는 표기가 첨부되었다. 거기에 반해 ‘Materialismus’(유물론)와 ‘Marxismus’(마르크스주의)와 같은 항목은 쉽고 문제가 없는 듯이 설명되어 있다.<sup>33)</sup>

주지하다시피 『독일현대어사전』 4권부터 동독의 2국가 정책이 사전 편찬에 반영되었다. 정책의 반영되기 이전인 1권부터 3권까지의 구 판본들도 정책발표 후 1971년부터 이에 상응하는 콘셉트로 수정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표제어 Enteignung (몰수)의 경우 원래 사전의 기본어휘에 연계되어 진한 글씨체로 등재되었던 복합어 Zwangsenteignung (강제 몰수) (2권, 1967)은 1977년에 나온 재판에서는 삭제되었다. 그리고 Glocke (종)의 경우에도 작은 글자체로 등재되어 있었던 복합어 Freiheitsglocke (자유의 종) (3권, 1969)도 재판(1973)에서는 삭제되었다. 동독 사전의 콘셉트 변화는 표제어 Deutschland의 설명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971년 이전에 출간된 『독일현대어사전』	1971년 이후 출간된 『독일현대어사전』
Deutschland / Ländername/: in D. leben; ein demokratisches, einheitliches D.; Deutschland, ein Wintermärchen (HEINE/Buchtitel); d. Demokratisierung, Spaltung Deutschlands; N e u p r ä g, DDR die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Abk.: SED; die Nationale Front des demokratischen Deutschland / Abk.: NF; N e u p r ä g, BRD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Abk.: BRD; bildl./ das Grüne Herz Deutschlands (Thüringen) (2권, 1967)	Deutschland, das / Ländername für das Territorium der deutschen Nation, bes. des ehemaligen deutschen Staates bis zur Herausbildung der zwei deutschen Staaten DDR und BRD nach 1945/ er lebt in D., ist in D. geboren, gestorben; Deutschland, ein Wintermärchen (HEINE/Buchtitel); das Wilhelminische, faschistische D.; die Befreiung Deutschlands vom Faschismus; / in Namen in der DDR, in der BRD/ N e u p r ä g, DDR die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Abk.: SED/ N e u p r ä g, BRD die Bundesrepublik D. / Abk.: BRD; offizielle

33) Malige-Klappenbach (1986), p. 50.

1971년 이전에 출간된 『독일현대어사전』	1971년 이후 출간된 『독일현대어사전』
	Bezeichnung für den westdeutschen Staat/ ; /der Ländername Deutschland für den ehemaligen deutschen Staat wird häufig in der BRD unberechtigt, unter Außerachtlassung der Existenz der DDR, für die BRD verwendet / (2권, 5판, 1977)
독일 / 국가 이름: 독일에서 살다; 민주, 통일 독일; 독일, 겨울 동화 (하이네/책 제목); 독일의 민주화, 독일의 분단; 신조어, DDR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 약자 SED; 민주주의 독일의 국민전선 / 약자: NF; 신조어, BRD 독일연방공화국/ 약자: BRD; 그림 / 독일의 녹색 심장 (튀링겐)	독일/ 독일 국가영토, 특히 1945년 이후 두 독일 국가가 형성될 때까지 예전 독일국가에 대한 국명/ 그는 독일에서 살고 있다. 독일에서 태어났다, 죽었다; 독일, 겨울 동화 (하이네/책 제목); <b>빌헬름 시대의 독일, 파시즘 시대의 독일; 파시즘으로부터 독일의 해방</b> ; / 동독의 이름으로, 서독의 이름으로 / 신조어, DDR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약자 SED; / 신조어, BRD 독일연방공화국/ 약자: BRD; 서부 독일 국가의 공식 명칭/ ; / 예전 <b>독일 국가에 대한 국명 독일은 흔히 서독에서 부당하게 동독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용되고 있다.</b>

이에 반해 서독의 사전에는 “고유명사”(GwDs Bd. 2, 1976), 혹은 “중부유럽에 위치한 나라”(두텐 『독일 유니버설 사전』, 1989)라는 아주 간단한 정보만 기재하고 있다.

#### 4. 서독의 두텐 『독일어대사전』

『독일현대어사전』의 마지막 6권의 분책들이 출간되는 동안 서독의 만하임에서는 동독의 사전과 마찬가지로 6권 분량으로 계획된 두텐 『독일어대사전』의 제1권이 출판되었다. 독일어에 대해 국가 공식적 기관임을 공공연하게 인정받아 온 두텐은 1903년 정서법 개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 이후 서서히 언어순화, 언어상담 등 다른 분야도 정복해 나갔다. 두텐 『독일어대사전』 출간의 시기는 타이밍이 절묘했는데, 왜냐

하면 서독의 서적시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동독의 『독일현대어사전』이 두텐과의 경쟁에서 반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sup>34)</sup> 두 사전의 경쟁 관계에 대해 서독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우스만은 이런 침묵의 원인을 “동베를린 사전에 대한 만하임의 의존성”<sup>35)</sup>으로 보았다.

1976년 출간된 『독일어대사전』의 제1권 머리말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독일어권에서는 수십 년 이래 현대적이고 일반적인 독일어사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는 동독의 『독일현대어사전』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틀린 표현이었다. 1977년 1권의 재판에서 이 문장은 슬며시 사라졌다. 그 당시 두텐 편집국의 편집국장은 두텐이 펴낸 다른 출판물에서 동독의 『독일현대어사전』의 사전편찬학적인 높은 수준을 인정했고, 이로써 두텐 『독일어대사전』이 동독의 『현대독일어사전』과 경쟁관계임을 공식화하였다. 그렇지만 두 사전에 대한 학문적 비교는 계속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전히 유지한 단계에 있는 독어학의 사전연구에 기인하고 있었다. 하우스만의 주장을 인용해보자.

서독의 사전 연구가 두텐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서독의 경쟁자가 두텐을 위해 등장했을 때 사전 연구가 비로소 포문을 열었다는 사실이 이런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sup>36)</sup>

‘서독의 경쟁자’는 브로크하우스 바리히의 6권짜리 『독일어사전』이었다. 이 사전은 두텐사전이 마지막 6권을 출간한지 얼마 되지 않은 1980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했다.

『현대독일어사전』에서 사용되었던 문헌이 822편이었던 것과 비교해

34) Hausmann, F. J. (1986), “Wörterbuch und Wahrheit. Zur Rezeption des Wörterbuchs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in der Bundesrepublik”. In: Malige-Klappenbach, *Das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p. 175.

35) Hausmann (1986), p. 178.

36) Hausmann (1986), p. 179.



보면 두덴 『독일어대사전』의 문헌은 대략 540편으로 훨씬 적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두 사전의 문헌 목록이 겹치는 부분도 적었다. 따라서 두덴 편집국은 『독일현대어사전』의 편집위원들과는 다른 텍스트와 문학 종류에 토대를 두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두덴사전들의 콘셉트는 일상어와 구어의 등재에 역점을 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두덴이 관심을 두는 것은 언어 발전의 최전방에서 있는 언어이고, 그럼으로써 보수적 언어와는 거리가 멀다. 두덴의 텍스트 종류 스펙트럼은 『현대독일어사전』의 그것보다 훨씬 더 넓으며, 그럼으로써 현대독일표준어의 내적인 어휘적 세분화를 더 적절하게 기록하고 있다.<sup>37)</sup>

여기서는 브레히트, 토마스 만, 하인리히 뵐, 귄터 그라스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ADAC와 관련된 실용 텍스트, 문고판 장편소설, 남성잡지, 전자 전문잡지, 지그문트 프로이트, 위르겐 하버마스, 동물의 세계, 국회 회의록 등을 망라했다. 출처는 90년이란 기간을 포괄하고 있지만, 1950년부터 1975년까지의 자료에 집중되어 있었다. 두덴 코퍼스의 발췌 밀도와 두덴이 그때그때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수집되었던 용례 모음의 크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언어 카드’에서 짧은 용례 문장들만이 발췌되었고 인용들은 신조어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사용 방식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다고만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자발적인 수집가들의 발굴 자료에서 편집된 용례 카드는 특히 눈에 띄는 것, 어느 정도 예외적인 것, 특별한 것, 새로운 것 등을 내포하고 있다.

1945년 이후에 출간된 서독의 두덴사전은 역사적 통시적 설정이라는 독일 언어사전의 주요 콘셉트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바로 — 역사적 깊이를 지닌 — 독일 현대어 사전이다”라는 문장이 머리말에 나올 정도로 역사적 설정이 계속 남아 있었을지라도, 방언, 전문어 내지는 특수어휘에 대해 두덴은 『독일현대어사전』과 같이 극히 제한적

37) Wiegand (1990), p. 2132.

으로만 수용하였다. 두덴은 스타일 평가에서 대부분 『독일현대어사전』을 따랐지만, 표기되지 않은 정상어 계층 하부 구조에서는 ‘일상어적’(umgangssprachlich), ‘가벼운’(salopp), ‘투박한’(derb), ‘통속적인’(vulgär) 등 4분야로 더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특히 성(性)적인 것을 표현하는 어휘는 『독일현대어사전』과는 달리 여기서 “포괄적이며 거의 제한 없이 표제어로 등장한다.”<sup>38)</sup>

정상어의 상층에는 세 등급이 있는데, 그중에는 신조어로서 ‘eruieren’(탐구하다), ‘omnipräsent’(어디에나 있는)와 같은 단어에는 ‘교양어적’(bildungssprachlich)이라고 세분화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독일어에서 나타나는 차이처럼 동서독의 차이 또한 ‘공간적 요소’에 속한다. 예를 들면 ‘Arbeitsfriede’(노동의 평화)는 서독 전형적 어휘이며, ‘Abschnittsbevollmächtigter’(부분 전권)는 동독 전형적 어휘이다. ‘Braunhemd’(나치당원), ‘SS-Mann’(친위대 대원)과 같이 ‘ns’(나치)라는 표기가 붙은 어휘는 시간적 요소에 속한다.

두덴은 1977년 재인쇄된 사전의 1권 머리말에서 “전 계층에서 사용되는 독일어를 서술하려 했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대(즉 1970년대)와 우리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전을 자세히 살펴 보면 두덴이 주장했던 현재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법적 의미적 핵심 정보인 ‘언어세계와 담론세계’가 이미 40년이 지나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예컨대 오늘날의 독자는 전후 시대와 68운동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숙지하고 이 사전을 읽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표제어 ‘Ohnemichel’이 의미하는 ‘Ohne-mich-Standpunkt’(나를 제외한 관점)가 “자아와 자신의 개인적 삶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공공의 일이나 사회의 과제에는 결코 참여 하길 원치 않는 사람의 관점”(GWdS Bd. 5)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그 당시 사용되고 있는 비유적 의미에 대한 힌트가 빠져있다. 즉, ‘Ohnemichel’은 서독의 재무장 논

38) Müller (1990), p. 240.

쟁의 시기에 전쟁을 “결코 다시는 반복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을 낙인찍는 표현이나 욕설이었다.<sup>39)</sup> 의미 정보에 이런 사회정치적 차원의 설명이 빠진 것은 두덴이 어휘 사용의 의사소통적 양상들을 의미 정보에 아직 체계적으로 편입하지 않았던 사실로 아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덴이 노력하고 1945년 이후 학술적 근거와 ‘집단 기억’을 근거로 해서 어휘의 형식 역사 모사에 더 이상 소모할 수 없었던 ‘역사적 깊이’(1권 1976, 머리말)도 고민거리였다. 예컨대 ‘völkisch’(민족의)라는 어휘는 라틴어 ‘popularis’에서 유래했으며 “인종 차별주의와 나치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민족주의적”이란 의미로 사용된다고 역사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반면에, 표제어 ‘Volksgeist’(민족정신)는 19세기와 20세기 초 민족주의에 대한 사회적 슬로건에 속한다는 설명도 없이 “민족의 정신, 의식”으로서 비역사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독일어대사전』은 ‘volkseigen’(인민이 소유한) 같은 어휘를 동독 특수어로 표시하고 있지만, 서독 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나 거기서 나온 많은 표제어들의 선전적 특징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두덴의 장점은 일상어와 교제어에 가까우며 모든 종류의 비문학적 텍스트 종류를 망라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바로 이런 다양성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늦어도 20년이 지나면 근본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어휘 목록을 위해 끊임없는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는 단점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39) Stötzel, G./M. Wengeler (1995), *Kontroverse Begriffe.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Sprachgebrauch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New York, p. 129.

## 5. 동서독 사전의 표제어 비교

동독의 『독일현대어사전』은 단일어 독일어사전의 어휘 설명이나 용례에서 당대의 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유행 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전이다. 특히 4권부터 동독의 2국가 이론과 서독과의 구분 정책이 사전편찬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말하자면 “마르크스 레닌의 세계관이라는 토대에서 전체 어휘를 일관성 있게 서술하는 것”(4권의 서문, 1974, II)이 국가의 지시였고, 이것은 어휘 분야의 ‘계급 투쟁’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서술 노선을 잘 보여주는 3개의 표제어, Manipulation, Pazifismus, Vaterland를 보기로 동서독 사전의 의미 설명을 비교 분석해 보자.

### 5.1. Manipulation (조작)

『독일현대어사전』은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b w e r t e n d Lenkung der öffentlichen Meinung durch die imperial. Bourgeoisie mit dem Ziel, das Bewußtsein der Menschen mit der herrschenden Ideologie gleichzuschalten.

**경멸적인 표현.** 인간의 의식을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를 통해 여론을 조정하는 행위

그리고 용례로 sprachliche M.; die M. durch die Massenmedien (언어 조작, 대중매체를 통한 조작) (4권 1974)을 들고 있다.

서독의 『독일어대사전』은 Manipulation의 의미 1번에 ‘bildungssprachlich’ (교양어적)이라는 문체 표시를 하고 das Manipulieren (조작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용례로 M. für Bedürfnissen und Meinungen (욕구와 의견에 대한 조작)을 들고 있다. 특히 『독일어대사전』 2판(1993-1995)은 두 개의 용례를 첨가하고 있다.

a) auf dem Weg (...) der scheinrechtlichen M. demokratischer Institutionen (Fraenkel, Staat 329) b) die Hemmnisse bei der Entwicklung von Klassenbewußtsein beschränken sich keinesfalls auf ‘Konsumgewohnheiten, auf -en von Bedürfnissen und Meinungen’ (Stamokap 150)

a) 민주주의적인 기관의 형식적인 합법적 조작의 도정에서, b) 계급의식의 발전에서 등장하는 방해물들은 ‘욕구와 의견의 조작이라는 소비 습관’에만 결코 제한되지는 않는다.

동사 manipulieren (조작하다)에 대한 설명으로 (bildungsspra.) durch bewußte Beeinflussung in eine bestimmte Richtung lenken (교양어. 의식적 영향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조정하다)으로 되어 있다. 용례로는 die Sprache, die Meinung des Volkes, die Öffentlichkeit m.; eine manipulierende Werbung (언어, 민중의 의견, 여론을 조작하다; 조작하고 있는 광고)을 들고 있다.

동독은 이 단어를 ‘경멸적인 표현’으로 표시한 반면, 서독은 ‘교양어적’ 표현이라고 각기 다르게 문체를 표시하고 있다. 단어 설명에서도 동독의 사전은 ‘지배 이데올로기’,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 등 서방 세계를 비난하는 표현을 동원한 반면, 서독의 사전은 ‘의식적 영향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조정’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 용례에서는 두 사전에서 별 차이 없이 ‘조작’의 쓰임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 5.2. Pazifismus (평화운동/평화주의)

이 어휘의 의미는 『독일현대어사전』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bürgerl. politische Strömung und Ideologie, die sich unter der Losung des Friedens um jeden Preis gegen jeden Krieg, auch gegen den gerechten Verteidigungs- und Befreiungskrieg, wendet (nach dem ersten Weltkrieg hatte der P. viele Anhänger gewonnen (4권 1974)

**평화라는 슬로건 하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당한 방어 전쟁이나 해방전쟁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의 정치적 사조나 이데올로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평화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다).

이에 반해 서독의 『독일어대사전』은 이 어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weltanschauliche Strömung, die jeden Krieg als Mittel der Auseinandersetzung ablehnt u. den Verzicht aus Rüstung und militärische Ausbildung fordert (Anhänger des P.); b) jmds. Haltung, Einstellung, die durch den Pazifismus (a) bestimmt ist (sein P. erlaubt ihm nicht, eine militärische Ausbildung mitzumachen.)

a) **논쟁의 수단으로서** 모든 종류의 전쟁을 거부하고 무장과 군대 양성의 중단을 요구하는 세계관의 흐름 (평화운동의 추종자); b) (a) 의미의 평화운동에 의해 규정된 태도나 입장 (그의 평화주의는 그로 하여금 군대 양성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별 차이 없는 의미 설명 같지만, 두 사전의 차이는 ‘평화라는 슬로건 하에’와 ‘논쟁의 수단으로서’라는 수식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서독의 사전에서는 이 어휘가 ‘논쟁의 수단’으로 폄하된 반면, 『독일 현대어사전』에서는 1970년 동독의 정책이 변화한 후에 어휘의 설명이 “동독에서 인간의 사회주의적 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진보적 힘을 도우며 “독점 자본주의를 통한 언어오용의 시도에”(4권 서문 1974, II) 대응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 5.3. Vaterland (조국)

『독일현대어사전』은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das innerhalb territorialer Abgrenzung gegebene, durch den Klassencharakter des Staates geprägte politische, kulturelle und soziale Milieu des Lebens eines Volkes.

민중의 삶에서 영토의 경계 내부에서 주어지고, 국가의 계급 특징을 통해 각인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용례로는 die DDR, unser sozialistisches Vaterland (동독,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를 들고 있다. 그 외에도 『독일현대어사전』은 이 어휘에 대해 문학 텍스트에서 인용한 2개의 용례를 더 제시하고 있다.

Nur ein politisches, kutuelles und soziales Milieu, das den Klasseninteressen der Werktätigen und nicht den Profitinteressen des Monopolkapitals entspricht, kann das wahre Vaterland des Volkes sein (Lehrbuch Staatsbürgerkunde 3, 214);

Denn das Gedeihen unseres sozialistischen Vaterlandes, der DDR, ist untrennbar verknüpft mit dem weiteren Erstarken der sozialistischen Staatengemeinschaft (HAGER Gesellschaft 38)

독점 자본의 이익 행위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 상응하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만이 민중의 **진정한 조국**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주의 조국** 동독의 번영은 사회주의 국가공동체의 폭 넓은 강화와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반해 두텐의 『독일어대사전』은 다음과 같이 Vaterland를 정의하고 있다.

Land, aus dem man stammt, zu dessen Volk, Nation man gehört, dem man sich zugehörig fühlt; Land als Heimat eines Volkes. (6권 1981)

자신이 출생한 나라, 그 민족이나 국가에 자신이 속해 있음,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끼는 나라; 민족의 고향으로서 나라.

용례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등재하고 있다.

das deutsche V.; ein einiges, geeintes, geteiltes V.; das V. der Franzosen; sein V. lieben; er lebt weit weg von seinem V.

독일 조국; 하나의, 통일된, 분단된 조국; 프랑스인의 조국; 그의 조국을 사랑하다; 그는 자신의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해석은 Vaterland의 개념이 동독과는 달리 서독에서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런 사실을 『독일어대사전』 2판에서는 용례로 들고 있다.

Der Begriff “Vaterland” stößt vor allem bei der Jugend in der Bundesrepublik immer mehr Auflehnung (MM 27, 3, 1981, 5); Nordafrikaner (...) als Algerien, Tunesien und Marokko, von der Not aus ihren Vaterländern vertrieben (Spiegel 22, 1985, 138)

‘조국’이라는 개념은 특히 서독 청소년들에게는 점점 더 반발 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가난으로 인해 자신들의 조국을 탈출한 북아프리카인들은 (...)

Vaterland에 대한 설명은 이와 같이 동서독 사전에서 극명하게 대립되어 기술되고 있다. 동독의 사전에서는 ‘진정한’, ‘사회주의’ 등 긍정적인 수식어가 동반되어 설명된 반면, 서독의 사전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분단된’ 등 사실 관계만을 표현하는 수식어나 ‘가난’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수식어와 결부된 용례를 등재하고 있다.

## 6. 결론

동서독의 분단 후 동독에서 나온 『독일현대어사전』은 독일사전편찬사에서 획기적인 사전이었다. 『독일현대어사전』은 역사적, 통시적 서술에 얽매어 있었던 독일사전학의 전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쉬르의 언어학에서 러시아, 체코의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이어지는 체계언어학 이론을 사전 구성의 콘셉트로 삼아 기술한 최초의 사전이기도 했다. 또한 이 사전은 편찬 과정에서 동독의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사전의 어휘 설명 콘셉트가 획기적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즉, ‘교양을 지닌 계층의 언어’를 서술하는 데서 ‘마르크스-레닌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이것은 표제어 ‘Deutschland’(독일)의 서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독일현대어사전』에서 2,601개의 표제어<sup>40)</sup>, 혹은 전체 어휘 중 3%만이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련<sup>41)</sup>되어 있다. 이런 계량화는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사전이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표제어들을 통해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분명하게 주장할 수는 없음을 입증해 준다.

서독의 대표 사전인 두텐의 『독일어대사전』은 시기적으로도 동독의 『독일현대어사전』보다 늦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의 구성 면, 특히 어휘 설명에서 문체를 표시하는 것 등은 동독의 사전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렇지만 서독 사전의 콘셉트는 동독 사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즉, 서독의 사전은 현재 사용되는 구어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유명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실용서나 잡지, 국회 회의록 등

40) Wiegand (1990), p. 2134.

41) Hausmann (1986), p. 177.

여러 종류의 텍스트에 나오는 어휘를 포괄적으로 담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서술 개념트는 고작 20년만 지나면 근본적인 개정작업을 필요로 하는 단점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여러 어휘의 설명에서 밝혀졌다.

동일한 표제어를 보기로 동서독의 두 사전, 즉 『독일현대어사전』과 『독일어대사전』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동서독의 언어관, 더 나아가서 세계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이 글에서 보기로 둔 세 표제어 ‘Manipulation’(조작), ‘Pazifismus’(평화운동), ‘Vaterland’(조국)의 어휘 설명에서 이런 사실은 분명해진다.

## 참고문헌

- 최경은(2015), 「122년에 걸쳐 펴낸 그림 형제의 『독일어사전』, 『새국어생활』 25권 3호, pp. 149-166.
- 최경은(2015), 「통일 독일의 언어 통합」,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pp. 53-74.
- Brockhaus-Wahrig (1980-1984), *Deutsches Wörterbuch*, hrsg. v. G. Wahrig, 6 Bde. Wiesbaden.
- Drosdowski, Günther (1991), “Deutsch — Sprache in einem geteilten Land. Beobachtungen zum Sprachgebrauch in Ost und West seit 1945-1990”. In: *Sprache und Unterricht* 67, pp. 21-35.
- DUDEN -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1976-1981), 6. Bde. Mannheim. (=GWdS)
- DUDEN -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Mannheim. 2.Aufl. 1989.
- Haß-Zumkehr, Ulrike (2001), *Deutsche Wörterbücher — Brennpunkt von Sprach — und Kulturgeschichte*. Berlin/New York.
- Hausmann, F. J. (1986), “Wörterbuch und Wahrheit. Zur Rezeption des Wörterbuchs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in der Bundesrepublik”, In: Malige-Klappenbach, *Das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pp. 175-192.
- Klappenbach/Malige-Klappenbach (1980), *Studien zur modernen deutschen Lexikographie*. Amsterdam.
- Lerchner, Gotthard (1974), “Zur Spezifik der Gebrauchsweise der deutschen Sprache in der DDR und ihrer gesellschaftlichen Determination”. In: *Deutsch als Fremdsprache* 11, pp. 259-265.
- Ludwig, Klaus-Dieter (2008), “Wörterbuch als Spiegel gesellschaftlicher Veränderungen”. In: *Germanistische Linguistik 192-194. Sprache und Kommunikation in Deutschland Ost und West*. pp. 535-554.
- Maas, Utz (1988), Die Entwicklung der deutschsprachigen Sprachwissenschaft von 1900 bis 1950 zwischen Professionalisierung und Politisierung.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6, pp. 232-252.

Mackensen, Lutz (1952), *Neues Deutsches Wörterbuch. Rechtschreibung. Grammatik. Stil. Wortklärung. Fremdwörterbuch.* Laupheim.

Malige-Klappenbach (1986), *Das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Müller, W. (1990), “Das ‘Fremde’ in deutschen Wörterbüchern: die Sexualität.” In: *Bewegung mit dem ‘Fremden’. Grenzen — Traditionen — Vergleiche. Akten des VIII. Internationalen Germanisten Kongresses Tokyo*, München, Bd.4, pp. 237-246.

Pekrun, Richard (1933), *Das deutsche Wort. Rechtschreibung und Erklärung des deutschen Wortschatzes sowie der Fremdwörter.* Leipzig, 2. Auflage, Heidelberg 1953.  
(1985년부터 Deutsches Wörterbuch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고 있음)

Stötzel, G./M. Wengeler (1995), *Kontroverse Begriffe. Geschichte des öffentlichen Sprachgebrauch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New York.

Wiegand, Herbert Ernst (1990), “Die deutsche Lexikographie der Gegenwart”. In: *Wörterbuch,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r Lexikographie.* F. J. Hausmann et al. (Hrsg.), Teilbd. 2, Berlin/New York, pp. 2100-2246.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Hrsg. v. R. Klappenbach u. W. Steinitz, bearb. v. R. Klappenbach und H. Malige-Klappenbach. 6 Bde., Berlin, 1961-1977. (=WdG)

원고 접수일: 2015년 12월 29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월 23일

계재 확정일: 2016년 1월 27일

ZUSAMMENFASSUNG

---

Vergleich der Wörterbücher in der DDR und BDR

- anhand des *Wörterbuchs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und des *großen Wörterbuchs der deutschen Sprache*

Choi, Kyung-Eun\*

Das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1961-1977) ist ein Meilenstein in der Lexikographiegeschichte der Nachkriegszeit. Es war das erste Wörterbuch, das die Modelle der von de Saussure eingeführten und von der Stilistik der Prager Schule weiterentwickelten strukturellen lexikalischen Semantik in die Lexikographie einführte. Die Stilmarkierung beruhte auf einem System von vier sogenannten ‘Stilschichten’ und elf ‘Stilfärbungen’.

Während der letzte Band des *Wörterbuchs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erschien, erschien auf der anderen Seite der Mauer der erste Band des großen Duden-Wörterbuchs mit dem Titel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1976-1981). In diesem ersten großen westdeutschen Wörterbuch, das nach 1945 erschien, steht die historisch-diachrone Orientierung an zweiter Stelle. Der Duden will also “die deutsche Sprache in ihrer ganzen Vielschichtigkeit darstellen und bewußt

---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Yonsei University

machen und zugleich ein Spiegelbild unserer Zeit und ihrer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sein. Das System stilistischer Bewertungen folgt aber zu weiten Teilen dem des *Wörterbuchs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Der Vergleich der beiden Wörterbücher mit Hilfe der gleichen Stichwörter zeigt die andere Weltanschauung der beiden Seiten des geteilten Deutschland. Das wird zum Beispiel in den Worterklärungen der drei Stichwörter 'Manipulation', 'Pazifismus' und 'Vaterland' deutlich.